

러시아 공격 격화 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최대 3분의 1 감소 가능

(FOCUS-Russian attacks could cut Ukraine grain exports by a thir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만 및 선박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월간 곡물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항만 터미널 운영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수출의 90% 이상을 흑해 항만에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영향권 중동산 비료의 미국 수입, 5월 '0' 기록

(US fertilizer imports from Hormuz-affected ports fell to zero in May, data show)

무역 데이터 업체 Descartes Datamyne은 목요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영향권에 있는 중동 항만발 비료 수입이 5월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전체 비료 원료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전쟁이 미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첫 추정치 가운데 하나다. 중동은 세계 주요 비료 생산 지역이며,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약 3분의 1이 통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그러나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 NOFI, 국제입찰 없이 사료용 밀 5만 5천~6만 5천 톤 구매

(South Korea's NOFI bought about 55,000 to 65,000 tons feed wheat in private deal)

한국의 주요 사료업체인 농협사료(NOFI)는 국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요일 늦게 비공개 거래를 통해 사료용 밀 약 5만 5천~6만 5천 톤을 구매했다고 유럽 트레이더들이 목요일 밝혔다. 구매 가격은 운임 포함 기준 톤당 약 277.25달러로 추정되며, 여기에 추가 항만 하역 비용으로 톤당 1.50달러의 할증료가 포함된다.

출처: Thomson Reuters